

HONG KONG
CHINA
INDIA
KOREA

2012 Patrimony Perpetual Calendar



Patrimony Perpetual Calendar



VACHERON CONSTANTIN

Manufacture Horlogère. Genève, depuis 1755.

1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국내 유일의 방명부수 공인판매업자

이광호의 숲은 무엇이 다를까?

한국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화가 이광호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 바로 사실성을 뛰어넘어 회화적 기법이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모든 재현 방식을 표현해낸다는 점이다. 이름 석자 대신 '선인장 작가'로 알려질 만큼 그를 대표해온 극사실적인 선인장 시리즈 대신 이광호 작가는 국제갤러리 K1에서 열린 개인전 <그림 풍경>(12월 16일~2015년 1월 25일)에 새로운 풍경 연작을 들고 나왔다. 주제는 제주도의 덩불 숲. 인적 없는 제주도의 꽃자왈 숲의 겨울 풍경을 주제로 한 자연과 계절에 따른 관능적 풍경의 심상을 담은 21점의 신작은 그동안 'Inter-View', '선인장' 연작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하면서도 숲 속에서 자라는 다양한 덩불을 대상으로 촉각적이고 심상적인 풍경의 장면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광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다양하고 놀라운 회화적 스펙트럼을 눈앞에서 감상하고 싶다면 1월이 가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문의 735-8449



작품 앞에 선 이광호 작가



정원이 그려진 벽화

이전에 없던 폼페이 유물전

이탈리아 나폴리 연안의 폼페이는 기원전 89년 휘황찬란한 휴양도시였다. 하지만 서기 79년 8월 24일 정오 도시 북쪽의 베수비오 화산이 갑자기 폭발해 도시 전체가 화산재에 묻히고 말았다. 폼페이는 그 후 1500년이 지난 1592년 운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물과 회화 작품이 발견돼 그 존재가 드러났다. 2015년 4월 5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로마제국의 도시문화와 폼페이>전은 그런 폼페이인의 역사적 유물과 각종 장신구, 벽화 등 298점을 소개하는 자리다. 이 전시가 여느 폼페이 전과 다른 점은 폼페이인의 집 내부 벽을 장식한 벽화까지 소개한다는 것. 그간 국내에서 폼페이 벽화를 소개한 일은 한번도 없었다. 나무 사이를 날아가는 새들이 있는 정원 그림, 고대 신화 속의 의미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 등 폼페이 사람들의 뛰어난 조형 감각과 높은 예술적 수준을 느끼고 싶다면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보자. 문의 2077-9000



폼페이인이 사용한 청동투구

에르메스가 달라졌어요!

메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 지하 1층에 위치한 아뜰리에 에르메스에서 2014년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후보들의 전시(12월 19일~2015년 2월 15일)를 연다. 2000년에 설립해 어느덧 15회를 맞은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은 에르메스 재단의 문화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매년 후보 작가 3명을 선정해 작품 제작과 전시를 지원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부상으로 전달한다. 올해 주인공은 디자인 작업으로 유명한 슬기와 민, 사진작가와 가구 디자이너, 음반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장민승, 그리고 독특한 작업 세계를 보여주는 여다함. 이 중 누가 최종 우승자로 선정될지는 미지수. 샤르자 비엔날레 12의 주은지 큐레이터와 타이페이 시립미술관의 팡웨이창 시니어 큐레이터를 비롯한 5명의 심사위원단은 최종 수상자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2월 18일 열린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전시 오프닝에서는 또 하나의 깜짝 뉴스를 발표했다.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을 2015년부터는 다른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것. 지금까지 3명의 후보 작가를 뽑는 대신 한 명을 선정해 파리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기회를 주고, 그다음 해에 아뜰리에 에르메스에서 전시를 열어준다는 것이 큰 그림이다. 에르메스의 색다른 진취적 행보가 국내 미술계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의 544-7722



Yeou Daham, Sound of 10,000 Horse Power, Digital print, 2011